



세계 1위 해운국 그리스와 해운협정 정식 체결

노무현 대통령 국민방문에 해운업계 대표 동행



우리나라와 그리스는 9월4일 해운협정을 체결했다.

처음으로 그리스를 국민방문한 노무현 대통령과 카를로스 파풀리아스 그리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과 마놀리스 케팔로지아니스 그리스 해운부장관은 이날 '한-그리스 해운협정'에 서명했다.

특히,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그리스 국민방문에는 한국선주협회 장두찬 회장을 비롯하여 이진방 부회장(대한해운사장), 이윤재 부회장(홍야해운 회장), 이정화 부회장(SK해운 사장) 등 외항해운업계 대표가 동행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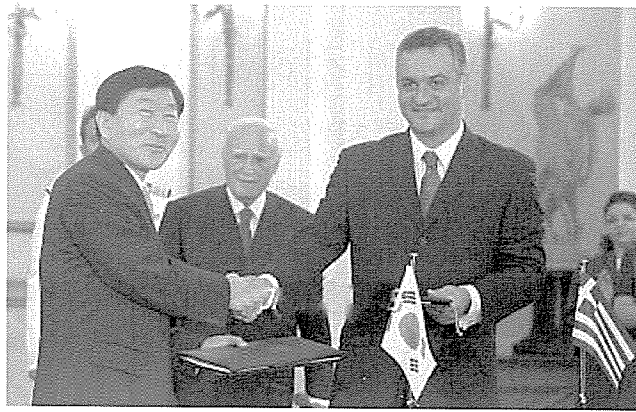
운선사는 그리스의 항만시설 사용이나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에 있어서 그리스 해운선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또 향후 높은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동유럽 지역과 흑해, 아시아 등을 연결하는 정기항로를 개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양국은 또 해상운송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접근을 보장하게 된다. 또 상대국 항만과 제3국 항만 간의 해상운송에 대한 참여가 허용되고 상대국 선사의 지사 설립

이 자유로워진다.

이와함께 상대국 항만시설 이용시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선박 및 선원 관련 증명서도 상호 인정된다. 그리고 해운수입의 송금이 자유로





워지고 상대국가 선박이 해난사고를 당했을 경우 자국 선박 수준의 보호 조치를 받게 되는 등 해운업계로서는 상당한 절차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김 장관은 협정 체결 후 가진 브리핑에서 “한-그리스 해운협정 체결을 통해 반도체, 자동차, IT 등과 함께 우리나라 주요 외화수입 산업인 해운업이 남동부 유럽지역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우리나라는 ‘한-그리스 해운협정’ 체결로 총 18개 국가와 해운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 브릭스(BRICs) 등 신흥 공업국가들과의 적극적인 해운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선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는 전세계 선박의 약 19%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 제1위의 해운국가이며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와 유럽지역을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수로기구(IH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무대에서도 다양한 활동과 영향력을 행사 중이다.

게다가 그리스는 한국의 첨단 해양수로기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

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조선업으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 1994년부터 양국간 해운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해운협정 체결은 2차례의 해운회담과 수차례의 실무급 회담을 거쳐 맺은 결실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반젤리스 메이마라키스 그리스 국방부 장관과 회의를 갖고 수로기술 분야의 정보 및 기술인력 교류, 실시간 해양관측 자료의

수집 및 교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그리스 해양·수로업무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선 지난 1일에는 그리스 해운부 장관과 팀바키온항 등 그리스의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양국은 양해각서에서 약 30억~60억원에 이르는 그리스 항만정보화 사업에 우리나라 항만 IT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그리스 방문은 해운, 해양수로기술, 항만 개발·운영 등 우리나라의 선진 해양 관련 기술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해양산업 세일즈 외교”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그리스 국빈방문에 한국선주협회 장두찬 회장과 대한해운 이진방 사장, 흥이해운 이윤재 회장, SK해운 이정화 사장이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했다.

특히, 장 회장은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9월1일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과 그리스 해운부 등을 예방하여 양국간 해운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9월4일에는 해운협정 서명식에 참석한데 이어 한-그리스 비즈니스포럼과 국빈만찬 등에 참석했다.